## 경계조정에 사활 건 東區 공무원들

# "두암3·풍향동 민심을 잡아라"

### 여론조사 앞두고 주민 설득 나서

광주시 동구청 김모(53) 과장은 지난주 내내 동구청이 아닌 북구 두암3동과 풍향동으로 출근했다. 이 지역을 동구로 편입시키는 '구간 경계조정안'에 동의해달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지난 22일부터 5일간 김 과장처럼 북구로 출근한 동구청 직원은 모두 300여명. 이들은 이 지역 1만2천 세대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동구 편입'에 동의해주면, 체육센터(70억원)와 공영주차장(15억원)을 지어주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동구는 인구가 갈수록 격감하고 있는 반면 그동안 '동·북구 구간 경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추진해온 두암3동·풍향동의 동구 편입이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전혀 진척되지 않아서다. 시민사회단체와 시·구의회 의원 등 15명으로 지난 6월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구간 경계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할 소위원회(6명)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동구청은 이 지역의 각종 행사에 공무원들을 보내는 등 단계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극심한 인구 감소=동구가 이들 지역을 편입시키려는 것은 극심한 인구감소로 지방세와 교부금이 줄어드는 등 재정이 악화되는 데다, 행정서비스도 나빠지고 있어서다. 동구는 지난 1992년 17만2천명에서 2007년 9월 현재 11만2천여명으로 한 달 평균 300명 이상이 도심을 떠나고 있다. 반면 서구와 광산구는 5년 전보다 각각 8만, 13만여명이 늘었다.

동구 인구가 10만 미만으로 줄어들면 동구청의 현 직제 가운데 국(총무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의사국·국장 지방 4급) 제도가 없어지고 과(과장 지방 5급) 체계로 변하게 된다. 국회의원 지역구(17대 인구하한선 10만5천명)도 인근 남구와 합해질 가능성도 크다.

동구는 지난 1980년 북구 분구 당시 떼어 준 북구 두암3동·풍향동을 다시 편입시켜 인구 14만명 선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이다.

◇주민 여론이 관건=동구는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주민투표를 통해 구간 경계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주민투표법(제14조)은 선거 60일 전부터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일은 내년 4월9일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총선 이후에는 선거구가 바뀌면서, 정치적 이해 관계가 엇갈려 구간 경계조정 논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동구는 '주민투표로 결정'(주민자치법 제4조)하는 방법을 택했다. 동구는 29일부터 전남대 법률연구소에 의뢰해 두암3동과 풍향동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경계조정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한다. 또 시의회 김후진(북구 제2선거구)·북구의회 마광민 의원(풍향동·두암3동 지역구) 등이 포함된 조정위원회측에 오는 11월 추가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에 해당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이 포함돼 있어 객관적인 여론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구는 이어 ▲북구의회와 협의(11월) ▲행정자치부 건의(12월) ▲주민투표(내년 1월) 순으로 향후 일정을 잡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북구청 사거리 가변차선 필요"

### 심재섭 북구의원

"가변차선제를 도입하고, 버스 승강장을 전남대 후문 쪽으로 옮겨야 한다."

광주시 북구의회 심재섭 의원(민주·북구 가)이 28일 북구 관내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북구청 사거리 교통량을 조사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심 의원의 조사결과 출근시간인 오전 8~9시에 북구청→ 중흥 삼거리를 통과하는 차량은 2천200대나 됐으나, 반대차선으로는 고작 710대만이 지나갔다. 오후 6시~7시 퇴근시간대에는 반대로 북구청→중흥 삼거리 방향 1천990대가 통과했고, 반대쪽은 1천445대가 운행했다.

출·퇴근 2시간동안 6천345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북구청 사거리로 몰리는 바람에 이 일대가 극심한 체증에 시달린다는 분석이다.

심의원은 이에 따라 퇴근시간에는 현재 2개 차로인 중흥3거리→북구청→전남대 후문→오치 방향 차선을 현행대로 3개 차선을 늘리는 가변차선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북구청옆 '헌혈의 집' 맞은편 버스승강장이 사거리와 접해 있어 정체를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용봉복개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소통 마저 막기 때문에 이 승강장을 후문 쪽으로 30m 가량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

**2007 광주 영어축제** 광주시 서구 쌍촌동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6~27일 광주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2007 광주 영어축제'. 이번 축제에는 227개교 666명의 중·고등학생이 연극·뮤지컬·웅변·퀴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문예회관 주차장 관람객만 이용하세요"

### 동문 진입 금지 … 11월부터 일반인 부분 통제

광주문예회관이 공연 관람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일반 차량의 진·출입을 부분적으로 통제한다.

문예회관은 이에 따라 중앙여고 쪽 동문은 진입을 전면 금지하고, 출구로만 사용하기로 했다.

또 고속도로 쪽 서문은 공연 시작 1시간30분 전부터만 개방하며, 정문으로는 주중 차량 통행이 허용되나 주말에는 공연 시작 1시간30분 전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문예회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회관 주차장의 개방으로 등산객들이 버스를 갈아타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 사용하거나 인근 주민과 상인 등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관람객들의 불편이 컸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특히 일반 시민들이 회관 내 주차장이 아닌 차량 통행로 등에 무질서하게 주차함에 따라 관람객들의 불편 호소가 계속돼 왔다.

■ 광주문예회관 차량 진출입 통제

문예회관은 이를 위해 자동차단기 등 부대시설을 설치했고, 오는 31일까지 회관 이용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출입통제에 대한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병용 문예회관장은 "일반 시민들이 회관 내 주차장이 아닌 차량 통행로 등에 무질서하게 주차함에 따라 관람객들의 불편 호소가 계속돼 왔다"며 "공연을 관람하지 않는 시민들은 주차장 사용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북구 31일 '가을 음악회'

광주시 북구는 오는 31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러시아 오케스트라 단원 60명을 초청해 지역주민을 위한 '가을 음악회'를 연다.

클래식 음악동호회인 '문화 신포니에타'(단장 정병열)가 주최하고 북구가 후원하는 이번 음악회는 ▲제1악장 '한국무용 영산회상을 방불함' ▲제2악장 '서정가요 방아타령' ▲제3악장 '아이 재우는 소리' ▲제4악장 '박연폭포와 교향시의 조국'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북구는 매년 봄·가을 정기연주회를 비롯 신년음악회·심야음악회·외국인 초청 연주회 등을 열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 아이사랑 우대카드 발급

### 11월부터 3자녀 이상 가정 혜택

다음달부터 광주지역 다 자녀 가정에 다양한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아이사랑 우대카드'가 발급된다.

광주시는 28일 "3자녀 이상을 가진 가정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아이사랑 우대카드'를 광주은행과 제휴, 다음달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01년 이후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족이며 금융기관이나 유아용품, 학원, 이·미용 등 서비스업체, 가전, 주유소 등 제휴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5~30%의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관내 어린이집 164곳을 비롯한 음식점 243곳, 학원 42곳, 소매업 36곳 등 17개 업종 622곳을 가맹점으로 모집했다.

시는 이와 함께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기로 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